|  |  |  |  |
| --- | --- | --- | --- |
|  | **보 도 자 료** | | EMB00001b0432bb |
| 배포 및 보도 요청일 : 2021.7. 15.(목) | | |
| 보도자료 : 총 6쪽  첨 부 : 10개 사진파일 | 보도자료 문의 :  032-327-6313(173, 174) press@bifan.kr | |
| 담당자 : 홍보팀 이연정, 박다솜 | | |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월드 판타스틱 레드 & 블루 화제작 베스트 10**

오는 18일까지 토종 OTT 웨이브에서 상영

‘월드 판타스틱 레드’ ‘월드 판타스틱 블루’.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집행위원장 신철)만의 고유 프로그램이다. ‘월드 판타스틱 레드’에서는 전 세계 장르영화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월드 판타스틱 블루’에선 기발한 드라마와 코미디 등 이상한 감수성으로 무장한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 토종 OTT 플랫폼 웨이브(wavve) 상영관(http://wavve.com/bifan)에서 볼 수 있는 레드·블루 섹션 화제작 10편을 소개한다.

**BIFAN × 웨이브 온라인 상영관, 레드 & 블루 화제작 10**



**앱스 | 감독: 루시오 A. 로하스, 호세 미겔 수니가, 산드라 아리아가다, 카밀로 레온, 사못 마르케즈 | 칠레 & 아르헨티나, 2021, 93분, 월드 프리미어 | 레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옴니버스 영화다. 앱을 매개로 현대 사회의 불안과 그 폭발을 보여준다. 심야의 일인칭 시점 호러와 리벤지 스릴러, 종교 광신 집단의 사지 절단 호러, 기이한 코믹 호러 등 다양한 장르 스타일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잭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 감독: 저스틴 G. 다이크 | 캐나다, 2020, 98분, 아시아 프리미어 | 레드**

손자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진 조부모는 손자를 되살리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한다. 젊은 여성을 납치해 손자의 영혼을 불러들이려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다. 점점 더 암울하고 극악하게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기괴한 오컬트 코미디. 악마와의 거래는 늘 피를 부른다.



**베니 러브 유 | 감독: 칼 홀트 | 영국, 2020, 94분, 아시아 프리미어 | 레드**

사회성이 부족한 장난감 디자이너 잭은 35세 생일파티 때 기묘한 사고로 부모를 잃는다. 라이벌에게 승진 기회도 빼앗긴다. 이제 그만 어른이 돼 자립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보는 내내 오싹한 전율과 웃음을 낳게 하는 호러 코미디. <토이 스토리>와 <처키>의 만남이라고나 할까.



**빌어먹을 | 감독: 알리스터 그리어슨 | 오스트레일리아 & 미국, 2020, 94분, 아시아 프리미어 | 레드**

렉스는 은행강도 무리를 제압하다가 사람을 죽게 한다. 영웅과 살인자 논란 속에 8년을 복역한 뒤 사람들 관심을 피해 미국을 떠난다. 그런데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어느 시골집 지하실 천장에 두 손이 묶여 매달려 있다. 황당한 상황들을 자극적이고도 소름 끼치게 보여준다.



**프랭크와 제드 | 감독: 제시 블랜차드 | 미국, 2021, 97분, 아시아 프리미어 | 레드**

‘피의 제사’를 벌이려는 사악한 영주. 그의 계획으로 유혈 낭자한 살육이 벌어지는 가운데 프랭크와 제드는 살아남기 위해 온갖 애를 쓴다. 판타스틱 고어 퍼핏 애니메이션. 프랑켄슈타인에게 오마주를 바치는 한편 위트와 동지애를 쏟아지는 피와 결합하여 눈부신 효과를 거둔다.



**친애하는 세입자 | 감독: 청유치에 | 타이완, 2020, 107분, 한국 프리미어 | 블루**

바닷가 어느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린. 그는 이 집 장남 리웨이의 동성 연인이다. 리웨이가 죽은 뒤 5년 동안 연인의 가족을 돌봐 온 그는 유산을 노린 살인범으로 내몰린다. 사회적 편견, 서로 상처를 주며 부서지는 인간성, 죄의식과 그리움 등 사람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조율했다.



**지오라마 보이 파노라마 걸 | 감독: 세타 나츠키 | 일본, 2020, 106분, 한국 프리미어 | 블루**

평범한 여고생 하루코와 대입 시험 준비 중 학교를 뛰쳐나온 켄이치, 영화는 이들의 엇갈림과 만남을 따라간다. ‘운명 같은 사랑’을 다룰 것처럼 시작하지만 둘이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는 것은 영화가 한참 진행된 후. 이들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 그 자체로 소중하고 눈부시다.



**핑크 클라우드 | 감독: 이울리 제르바지 | 브라질, 2021, 105분, 한국 프리미어 | 블루**

원인불명의 분홍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사람들은 바깥출입을 금지당한다. 서로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갇힌 지오바나와 야구는 격리 상태를 겪으며 커플이 되고, 부부가 되고, 아이도 낳고 화상통화를 통해 바람도 피운다. SF적 상상력이 현실과 오버랩, 아찔하게 다가온다.



**올드맨 무비 | 감독: 미크 마기, 오스카르 레헤마 | 에스토니아, 2019, 88분, 한국 프리미어 | 블루**

젖소가 인간에게 우유를 공급하다가 젖이 부어 폭발해 사망한다. 그 때문에 미치광이가 된 축산업자는 소만 보면 광기를 일으킨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다. 공포·크리처·스팀펑크 등 종잡을 수 없다. 모든 장르물, 특히 코믹 호러를 좋아하는 두 감독은 그 취향을 한껏 발휘한다.



**우리 뜻대로 | 감독: 첸헝이, 무니 웨이 | 타이완, 2021, 108분, 아시아 프리미어 | 블루**

계층, 처한 상황, 가치관도 다른 네 쌍의 연인들이 펼치는 사랑과 결혼을 그린 셰익스피어의 <좋으실대로>를 각색했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관습을 올 여성 캐스팅으로 반전시킨 유쾌한 희극. 영화 내내 등장하는 무수한 여성 커플들의 모습은 결코 작지 않은 전복의 즐거움을 준다.